

전남 1200여 농가 1167ha 농작물 저온 피해

10개 시·군서...정밀조사 진행하면 더 늘 듯 배·매실·참다래·고추 등 10개 품목서 발생

이달 초 이상 저온으로 전남지역 1200여 농가가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10개 시·군 1100ha에 걸쳐 저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다. 정밀조사를 진행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도내 최저기온이 영하를 밑돌아 관내 10개 시·군에서 재배중인 10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 지역은 나주·해남·영암·순천·보성·곡성·함평·장성·구례·광양 등으로, 전체 피해 규모는 1167ha(1207 농가)에 이른다.

품목별로는 배 493ha·매실 40ha·참다래 25ha·고추 21ha·밤호박 10ha 등으로, 배 농가가 많은 나주 피해면적이 300ha로 가장 넓다. 이어 해남·영암 70ha, 순천 62

ha, 보성 51ha, 곡성 41ha 등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이들 작물에서 개화기 전후 저온피해로 꽃눈이 고사하거나 새롭고 피어나는 잎이 추위에 말리면서 죽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배의 경우 수분이 이뤄지는 만개 시기에 서리, 냉해 등이 발생하면 착과 불량으로 이어져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거쳐 이상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품목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정밀조사나 피해복구 지원체

획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농가와 마을 이장,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돌며 조사한 뒤 재난관리업무포털에 조사결과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전남도는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농식품부를 통해 복구지원비를 확정, 다음 달 중으로 지원한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시기, 복숭아 등 6개 품목 1만9795ha에서 발생한 저온피해로 312억99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동서화합 다지는 달빛동맹 사업 강화”

이용섭 광주시장 간부회의서 강조 대구시장 228번 버스 명명식 참석

이용섭 광주시장이 ‘달빛동맹’ 등 동서화합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강화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화요간부회의에서 “10년째를 맞이하는 달빛동맹이 민선 7기 들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달빛동맹’은 달구벌과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두 도시 간 우호 협력 사업을 의미한다.

이 시장은 “오는 26일 권영진 대구시장 이 광주시에서 상생 협력을 주제로 특강

을 하고 5월 18일부터 운행되는 228번 버스 명명식과 시승식을 갖는다”며 “저도 5월 2일 영호남 갈등 해소를 주제로 대구 경북대를 찾아 특강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이제 달빛동맹은 단순한 행정적 교류를 넘어 스포츠, 문화, 청소년 등 민간교류로 확대되고 있다”며 “동서화합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오는 28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SBS 슈퍼콘서트’ 준비에 내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내년도 국비 사업 추가 발굴 등도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버스도착안내단말기 2022년까지 확대 설치

광주시가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성 증대를 위해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를 2022년까지 정류소의 50%까지 설치한다.

광주시는 23일 “올해 117개 신규 설치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43억원을 투입해 560곳의 정류장에 BIT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시에는 총 624곳에 BIT가 설치돼 있으며,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버스정류장 2330곳 중 32%에 해당하는 741곳에 BIT가 설치된다. 추가 설치에 따라 2022년까지 현재 27% 수준인 설치율이 50%(1184대)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단말기(138대)를 신형 발광다이오드(LED) 패널로 교체하는 개선 사업도 올해 59곳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추진한다. BIT가 설치되지 않은 정류장에서는 모바일광주 앱을 통해 버스 도착 정보를 알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명이라도 더...’ 23일(현지시간) 필리핀 팜팡가주(州) 포락 마을에서 구조대원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한 상가 건물 잔해에서 생존자를 구출해 옮기고 있다. 전날 오후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한 필리핀에서는 이날 오전까지 최소 11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 붕괴한 건물에는 다수의 주민이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시·도지사 공약실천 평가 이용섭 광주시장 ‘최우수’

이용섭 광주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19 민선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됐다.

2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민선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은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전북도, 경북도 등 5개 자치단체장과 함께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전문가와 시민 활동가를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해 전국 17개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이행실천계획서 등 공약자료를 분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국내외 18개 기업 1506억 투자협약 체결

에너지·금속·전자분야 등 500여명 일자리 창출 기대

광주시는 23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국내외 18개 기업과 1506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가 이뤄지면 5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투자 유형을 보면 ▲에너지 분야(주)테라플랫폼 등 6개사 300억원 ▲금속 분야(주)에스제이메탈 등 4개사 457억원 ▲전자 분야 아르네코리아(주) 등 3개사

262억원 ▲의료기기 분야 에이치디티(주) 등 2개사 165억원 ▲기타 분야(주)미로 등 3개사 322억원 등이다.

외국기업으로는 이탈리아의 냉장·냉동 설비 전문기업인 아르네그룹의 한국법인 아르네코리아(주)가 평동2차 산업단지에 100억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일본기업인 (주)엔플레이스는 자동차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빛그린산업단지에서 80억원을 투자해 한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국내기업으로는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에이컴에너지(주)가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에 75억원을 투자한다. 에이컴에너지(주)는 LED 조명, 가로등주, 경관조명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PCM방식의 냉각시스템을 적용한 태양광발전장치 및 ESS 조립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또 (주)광성물류는 기아자동차 부품전문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평동3차산업단지에 250억원을 투자해 혁신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물류센터를 신축한다.

그동안 광주시는 민선7기 들어 지금까지 43개사와 5652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민선7기 투자유치 목표는 170개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배우 성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수영실력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는 수영선수 출신 배우 ‘성훈(사진)’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제3기 홍보대사’로 나선다.

23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5층 그랜드 볼룸에서 광주수영대회 유니폼 패션쇼와 더불어 배우 성훈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날 위촉식에서 성훈은 이용섭 조직위원장으로부터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

고,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 소감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성훈이 홍보대사로 합류하면서 광주세계수영대회 ‘제3기 홍보대사’는 박태환과 안세현(수영선수), 이낙연(국무총리), 오정해(국약인) 등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초대 총괄건축가 함인선 교수 위촉

광주시는 23일 함인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를 초대 ‘광주 총괄건축가’로 위촉했다.

총괄건축가는 건축·도시디자인의 품격과 품질 향상을 위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민간전문가로, 건축·도시공간정책 및 전략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공공건축 및 도시공간환경 조성사업 등을 조정한다.

함인선 총괄건축가는 서울대 출신으

로 명지대 건축학과 겸임교수, 한양대 건축디자인대학원 겸임교수, POSCO A&C 수석기술고문 등을 역임했으며 ㈜선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를 지냈다.

/오광록 기자 kroh@



지역평가

최영환 시의원 발의 교육비 보조금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광주시의회 최영환 의원(민주·비례)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마치면 광주시교육청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 시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청 보조사업자는 예산 집행 시 전용카드를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이 투명해 질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보조사업자 선정 시 부도덕한 사업자를 거르지 못하는 행정 절차와 보조금을 횡령한 단체에 민간보조금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정의로운 광주와 건전한 지역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www.cdu.ac.kr

하늘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항공 특성화 대학-초당대학교

-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항공교통학과, 항공교통물류학과
- 비행교육원(항공훈련기 11대-무안국제공항, 해남산이비행장) 운영 및 영평항공캠퍼스 추진 중
-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산학협력 체결
- 항공정비인력을 양성을 위한 Rotax엔진교육센터 운영

초당대학교
전남 무안군 무안로 380
Tel 1577 2859